제3장 아내를 바르게 인도하라

도 입

옛날에는 원칙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사대부의 경우 아내는 집안의 일을 맡고 남편은 집밖의 일을 맡았다. 율곡 선생이 집안에서 아내를 바르게 인도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중국 고대의 문화나 관습이 그 배경으로 깔려있고, 남성 사대부가 주체가 되어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유학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게다가 이 글이 국왕에게 올리는 것이므로 특별이 임금의 집안 단속 곧 여러 아내를 단속해야 하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행간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집을 다스리는 데는 먼저 아내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시경』에 "아내를 바르게 하여 형제에 이르고 그리하여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였다.

[주역]

집안사람의 도리는 여자의 바름을 이로운 것으로 한다.

〈주석〉 "집안사람의 도는 여자가 바르게 되어야 이로운 것이 있다. 여자가 바르게 되면 곧 집안의 도가 바르게 된다. 다만 여자의 바름만을 말한 것은 여자가 바르게 되면 남자도 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자가 말하였다. "아내가 바르게 되면 남편도 바르게 되지 아니함이 없다."

[주역]

남자와 여자가 바른 것은 천지의 큰 뜻이다.

〈주석〉 정자가 말하였다. "남자와 여자가 바르게 되어야 비로소 천지와 음양의 큰 뜻에 부합된다."

[시경]

꾸룩꾸룩 우는 저구새는 강가에서 속삭이고,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저구새는 정한 짝이 있어서 서로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란히 헤엄치고 놀면서도 서로 너무 가까이 달라붙지는 않는데 그 성질이 그러한 것이다."

해 설

소개한 경전이나 그 해석의 글을 얼핏 보면 아내만 바르게 되면 집안이 잘 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서 남편은 예외적인 존재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율곡 선생이 이 책을 편찬한 동기나 또 내용의 순서를 보더라도 임금 또는 남성 주체의 수신이 가장 먼저 전제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제2부 1장에서 소개한 『맹자』의 "자기가 몸소 도(道)를 행하지 아니하면 처자에게도 도가 실행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부리는 데 도(道)로써 하지 아니하면 처자에게도 명령이 시행될 수 없다."라는 말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자가 집안에서 바르게 되는 것은 여자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남녀의 문제는 상대적이다. 앞에 소개한 『주역』이나 『시경』은 사물의 이치를 도덕적으로 보려는 성리학이 탄생한 송 대보다 훨씬 이전에 등장한 문헌이므로, 이 경전의 내용은 남녀의 문제를 남성 중심에서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집안에서 여자가 바르면 남자도 바르게 될 수 있고, 남자가 바르다면 여자도 바르게 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남자나 여자가 바르지 못하면 한 쪽마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 앞의 『맹자』의 글에서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게 사실 오늘날의 우리 입장과 더 가까울지 모른다. 그래서 아내만 바르면 남편도 바르게 되고 집안이 다 잘될 수 있다는 믿음은 유동적이다.

그런데 주자의 주석에서 저구새는 "정한 짝이 있어서 서로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란히 헤엄치고 놀면서도 서로 너무 가까이 달라붙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잘 관찰한 말이다. 새들은 짝짓기 철이 아니면 가까이 있어도 서로 붙어있지 않는다. 그래서 문란하거나 음란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

나 인간은 다르다. 『시경』에서 노래 부른 사람이 주자와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주자의 생각은 남녀관계가 금욕적이어야 하고 분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부부유별(夫婦有別)과 부부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하라는 상경여빈(相敬如賓)의 가르침에 충실하다. 부부사이라도 왜 음란하면 안 되었을까?

생각해 볼 문제

1. 흔히 남존여비(男尊女卑)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유학의 고약한 사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이 말은 도가(道家) 계열의 서적인 『열자(列子)』에 등장하는 말이다. 그러나 유학에 그런 혐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점은 유학만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 등장하거나 성립된 제도·사상·종교에서, 가령 서양 역사나 그리스도교에서조차도 여성차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차별이 유교만의 폐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여러분들은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우리 역사나 야사(野史)에 보면 남편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올바른 사람이어서 훗날 남편도 집안도 잘 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남편의 수신(修身)이 좋지 않아도 아내의 덕으로 반성하여 제대로 된 경우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만 말해보자.

3. 우리전통의 관습에서는 여자가 시집가면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하여 시댁의 식구가 되어 거기서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은 두 자녀나 한 자녀만 낳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남자와 동등하게 시켜 출가외인이 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친정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딸을 교육시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키웠는데, 남의 집에 보내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남성들 가운데는 아내와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전통에 따라 자기 부모만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아내를 나무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남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그의 아내 입장이라면 이 남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한문 익히기

개 형 처 지 도　　무 타　　지 시 수 기 이 이
蓋刑妻之道는 無他니 只是修己而已니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蓋 : 대개, 일반적으로/刑 : 바르게 하다, 형벌/妻 : 아내/之 : ~의/無 : 없다/他 : 다른/只 : 다만/是 : ~이다, 옳다/修 : 닦다/己 : 자기, 몸/而 : 접속사/已 : 어조사

*의미상의 주어는 남편이다.

*只是 : 다만 ~이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단지, 다만으로 쓰인다.

*~而已 : ~일(할) 뿐이다. 문장 끝에 붙어 강하게 단정하는 말로, 더 강한 표현에는 ~而已矣가 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수기(修己) : 자기 몸을 닦음. 자기를 수양(修養)하는 것

해석

대개 아내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으니 다만 자기 몸을 닦는 것뿐이다.

부부지간 상경여빈 임석지상 무일압지실
夫婦之間은 相敬如賓하고 衽席之上이라도 無昵狎之失하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夫 : 지아비/婦 : 지어미, 아내/之 : ~의/間 : 사이/相 : 서로/敬 : 공경하다/如 : ~처럼, ~같이/賓 : 손님/衽 : 옷섶, 요/席 : 자리/上 : 위/無 : 없다, 말다, 금지하다/昵 : 친하다/狎 : 익숙하다, 친하다/失 : 잃다, 실수

*無 : ~하지 말라 또는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금지하는 말로 쓰였다.

*衽席之上 : 잠자리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임석(衽席) : 이부자리, 잠자리, 부부가 동침하는 때

*일압(昵狎) : 흉허물이 없이 너무 가까운 사이. 親狎과 같은 말

*상경여빈(相敬如賓) :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늘 공경하기를 마치 손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말

해석

부부 사이는 손님처럼 서로 공경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어서라도 너무 가까이 하는 실수가 없도록 하라.